

6·3 지선…참일꾼 찾아

<5> 전남 5개 시 이괄 수장은

목포·여수·순천·광양·나주는 전남을 대표하는 시 단위 도시들로, 6·3 지방선거 결과는 각 도시의 향후 4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이 된다. 항만과 해양산업의 중심지인 목포와 여수, 산업과 물류 거점으로 성장해 온 광양, 주거·정주 기능이 확대되며 인구 유입이 이어지는 순천, 공공기관 이전과 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도시 틀을 갖춰는 나주는 서로 다른 여건 속에서 각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전남 시 단위 선거를 중심으로 후보들의 경쟁 구도 등을 짚어본다.

민주당 vs 무소속 경쟁 속 다자구도 ‘주목’

목포시장

강성휘·전경선 등 공천 경쟁
박홍률 출격·정의당 후보 채비

현직 부재 상태인 전남 목포시장 선거 판이 본격적으로 돌아오고 있다. 선거 판은 특정 인물 중심이 아닌, 다수 후보가 각각의 이력과 강점을 앞세우는 다자 경쟁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현재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은 박홍률 전 목포시장,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 전경선 전남도의원, 이호균 목포과학대학교 총장, 장복성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배중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등이다. 여기에 윤성웅 국민의힘 목포당 협위원장, 여인두 정의당 목포지역위원장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며, 선거 구도는 복수 정당이 참여하는 다중적 경쟁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행정 경험을 앞세운 후보, 정책 전문성을 강조하는 후보, 지역 밀착형 이미지를 내세우는 후보들이 각기 다른 지점을 파고들며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무소속의 박홍률 전 시장은 민선 6기와 8기 시장을 이끈 경험을 토대로 교육

발전특구와 기회발전 특구 지정 성과를 주요 이력으로 내세운다.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퇴진했지만, 본인에게는 피선거권 제한이 없어 출마에 법적 제약은 없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과반 득표를 기록한 경험 역시 다시 거론된다.

민주당 후보군도 각자의 경력과 의제를 앞세워 경선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 강성휘 전 도의원은 3선 시의원과 재선 도의원, 국회의원 비서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거치며 정책·행정 경험을 축적해 왔다. 전남도사회서비스원장직을 내려놓고 선거 준비에 나선 점도 도전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경선 도의원은 목포 토박이로 시·도의회를 거치며 생활 현안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온 점을 강조한다.

이호균 총장은 전남도의회 부의장·의장을 역임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무안·만도 통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과



강성휘



박홍률



배중호



이호균



장복성



전경선

제로 제시하고 있다. 장복성 부위원장은 6선 시의원 경력을 토대로 목포·신안 통합과 단일 개혁 구상을 내놓고 있다. 배중호 회장은 방송 활동과 지역 행보를 통해 꾸준히 이름이 오르내리며 잠재적 변수로 거론된다.

이번 목포시장 선거는 특정 진영 간 단순 대결보다는, 정당별 후보 구성과 민주당 내부 경선 결과, 소수 정당 후보의 참여 여부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는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현규 기자 gnnews1@목포=성명준 기자 tjdaudwns@

후보자 난립…연임 불가 징크스 깨지나

여수시장

정기명 재선…명창환 등 도전
여수산단·관광 해법 최종 변수

여수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단 한 차례도 연임 시장을 배출하지 못한 특수한 정치 지형을 안고 있다. 8년의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가 5차례, 무소속 후보가 3차례 당선되면서 ‘연임 불가’와 ‘무소속 돌풍’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이어져 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되풀이될지, 아니면 현직 프리미엄이 작동하며 새로운 장을 열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석유·화학산업 침체와 관광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각 후보가 제시할 해법이 최종 선택의 잣대가 될 전망이다. 지역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경선과 본선의 최대 변수다. 정기명 현 시장은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김순진 전 여수시의회 부의장, 김영규 전 여수시의회 의장, 김유화 전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창주 전 여수경영인협회 회장,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서영학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이광일 전



정기명



김영규



김유화



명창환



백인숙



서영학



이광일



한문선

남도의회 부의장, 이용주 전 국회의원, 주중섭 전남도의원, 한문선 여수상의 회장 등이 민주당 공천장을 노리고 있다. 권오봉 전 여수시장도 출마가 점쳐졌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희택 국민의힘 여수를 당협위원장, 이상우 조국혁신당 여수시 지역위원장도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과 ‘연임 불

가’ 전통의 충돌, 민주당 경선 과열과 사전 단일화 가능성, 명창환 전 부지사 등 신인급 변수, 2026 세계섬박람회 준비 성과가 맞물리며 다중 구도를 형성할 전망이다. 민선 자치체 이후 단 한 차례도 시장 연임이 없었던 여수에서 이번에도 ‘징크스’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여수시민들의 선택은 산단과 관광이라는 지역 현안을 해결할 실질적 해법을 누가 내놓느냐가 최종 당락을 가를 핵심 열쇠다. 이현규 기자 gnnews1@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무소속 현직’ 맞서 민주 후보군 도전장

순천시장

노관규, 정검다리 4선 관심
민주, 치열한 경선전 예고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무소속 단체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는 순천은 6·3 지방선거에서 가장 상징적인 격전지로 꼽힌다. 민주당 조직력이 강한 지역에서 무소속 시장이 재선을 넘어 4선에 도전하는 구도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 지난 민선 8기 동안 누적된 현안과 갈등이 유권자의 판단대에 오르기 때문이다. 현역 노관규 순천시장은 민선 3·4기와 8기를 거치며 세 차례 시장을 맡았다. 순천만세계정원박람회를 기획한 인물로,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며 ‘정원도시 순천’이라는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형 사업을 밀어붙이는 추진력과 행정 경험은 강점이지만, 무소속이라는 정치적 한계도 분명하다. 노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정검다리 4선 고지에 오른다는 구상이다. 맞서대는 민주당 경선에서 가려진다. 민주당은 순천에서 다자 경선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오하근 전 전남도 의원은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기업 경영 경험과 의정 활동을 앞세워 ‘경제와 실물 중심 시장’을 강조한다. 순훈보 변호사는 임차인·노동 관련 소송 등 생활 현장에서 쌓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서민 친화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서동욱 전 전남도의회 의장은 다선 도의원 경력과 조직력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허석 전 순천시장 역시 민선 7기 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재기를 노리고 있다. 여기에 한숙경 전남도의회이 최근 출판기획회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서면서 여성 후보 카드도 부각되고 있다. 진보 진영의 움직임도 변수다.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 경험을 토대로 순천시장 도전장을 준비 중이다. 노동과 민생 이슈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일정 부분 골 결집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국혁신당 등 신생 정당의 후보 출마 여부 역시 향후 판세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꼽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순천 선거를 ‘무소속 현직 대 민주당 경선 승자’ 구도로 보



노관규



서동욱



순훈보



오하근



이성수

면서, 다자 구도 형성 여부에 따라 판세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본다. 또 다른 관련 포인트는 중앙 정치 환경과 지방선거 프레임이다. 국정 평가 성적에 강해질 경우, 무소속 단체장보다는 정당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지역 현안 중심의 선택이 이뤄진다면, 순천시장 연속성과 행정 경험을 내세운 노 시장의 전략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순천=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윤병태 재선 가도…당내 경선 향배 촉각

나주시장

이재태·김덕수 등과 경쟁
임성훈 전 시장 출마 검토

나주시장 선거는 재선 도전에 나선 윤병태 시장과 대항마들의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는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사실상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후보 중에서 가장 앞에 서 있는 인물은 윤병태 현 나주시장이다. 윤 시장은 기획재정부와 전남도 정부부지사를 거쳐 2022년 민선 8기 나주시장에 당선됐다. 취임 이후 ‘영산강 르네상스’를 기치로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빛가람 혁신도시와 원도심 연계 정주환경 개선, 탄소중립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이어 1조 2000억원 규모의 인공대양(해운항) 연구시설 유치에 성공하며 굵직한 성과를 더했다. 윤 시장은 이러한 정책 연속성과 행정 안정성을 앞세워 재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전 세력도 만만치 않다. 이재태 전남



윤병태



김덕수



이재태



임성훈

도의회는 지역 언론인 출신으로 나주시 비서팀장,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지방과 중앙 정치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이다. 전남도의회 대변인과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집행부 견제와 현안 대응 과정에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이 의원은 현직 중심의 소통과 실무 경험을 강점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김덕수 전 국무총리실 정부기획비서관도 출마 준비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관은 국회와 정부에서 정책보좌 경험을 쌓았고, 김부겸 국무총리 재임 시절 정부기획비서관으로 활동하며 중앙 정치권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특히 국무총리실 근무 당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관련 현안을 중앙정부 차원의 의제로 끌어올린 이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민주당 외곽에서는 임성훈 전 시장이 혁신당 입당을 검토하며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관측도 나와 선거 구도를 더욱 복

잡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지역 내 기반 확대 차원에서 후보군을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는 빛가람 혁신도시 표심이 꼽힌다. 나주시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만9000여명이 빛가람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총사자와 젊은 층 비중이 높다. 생활 인프라, 교통, 교육, 문화 등 실질적인 정주 여건에 민감한 만큼 후보들의 정책 경쟁력이 표심을 가를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에서는 이번 나주시장 선거가 인물 대결을 넘어, 나주의 미래 비전과 정책 실행력을 둘러싼 선택의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직 시장의 성과와 연속성, 도전자들의 변화와 대안이 맞서는 가운데 민주당 경선부터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나주=조원현 기자 pose007@gwangnam.co.kr

무소속 성지서 민주당 후보간 경합 치열

광양시장

정인화, 복당 후 재선 도전
김태균, 강력 대항마 거론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두터운 지역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광양은 지난 20여년간 단 한 차례도 민주당 소속 시장을 배출하지 못했다. 무소속 후보들이 잇따라 승리하며 ‘무소속의 성지’로 불려온 만큼,

이번 선거는 정치적 관성을 끊을지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광양시장 선거에는 정인화 현 시장을 비롯해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문양오 전 광양시의회 부의장, 박성현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서동용 전 국회의원, 서영배 광양시의원, 이충재 여수광양항발전협의 회장 등이 민주당 권역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진보당과 국민의힘·조국혁신당 후보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다자구도 형성 가능성이 크다. 정인화 시장은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 행

정고시 출신으로 전남도와 국회를 거친 뒤 민선 8기 시장에 오른 그는 민주당 복당 이후 시장 성과와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연임을 노린다. 광양 유권자들의 뿌리 깊은 무소속 선호 정서는 여전히 부담 요인이다. 김태균 의장은 3선 도의원과 도의회의장으로 쌓은 조직력과 도전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20만 만의 민주당 시장’이라는 상징성을 앞세워 본선 판세를 흔들 변수로 평가된다. 문양오 전 부의장은 기초의원 출신으로 생활정치와 지역 밀착 행보를 강조하며 경



정인화



김태균



문양오



박성현



서동용



서영배



이충재

선 완주 의지를 보인다. 박성현 전 시장은 해양물류 전문가로, 항만·산단 혁신과 해양물류 중심도시 비전을 전면에 내세운다. 서동용 전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을 잇는 정책 설계 역량을 강점으로 검토 중이다. 서영배 시의원은 3선 의장 출신으로, 출

마 시 풍부한 의정 경험과 조직력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충재 회장은 공직과 공무원노조 경험을 토대로 행정 이해도를 강조한다. 진보당과 조국혁신당도 후보자를 낼 경우 민주당 중심 구도에 균열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번 선거는 인물 경쟁을 넘어 구조적

과제가 판세를 좌우한다. 석유·화학산업 침체, 항만 물류 혁신, 원도심 재생, 체류형 관광 전환 등은 모든 후보가 답해야 할 공통 과제다. 여기에 교육·복지·교통 등 시민 체감 현안까지 겹치며 선택 기준은 더욱 복합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